

제2공항 주변발전 계획 용역 발주

시가화 예정용지 면적 4.9km²

지역 신성장 거점 육성 검토

속보=제주 제2공항(예정지) 주변 지역에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조성할 것으로 알려진(본보 1월 26일자 3면)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본격 발주됐다. 시가화 예정용지 면적이 4.9km²로 우도(6.18km²)와 비슷해 사업 규모와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는 지난 15일 조달청에 제주 제2공

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공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용역비는 6억원이며, 사업 수행능력 평가 등을 거쳐 오는 4월말께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

용역은 지난해 제주연구원이 수행한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구상안 용역'을 구체화 하는 것으로,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개발을 통한 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본구상안 용역에는 스마트시티 조성안 등을 담은 생산기반 시설 확충방안을 비롯해 △배리어프리 관광지 개선 사업 △컨벤션센터 등 민자유치 관광인프라 조성 △농지은행 지원사업 △지역주민 이주지역 조성사업 등 35개 사업이 담겨있다. 예산은 1조142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제2공항 기본구상 연구 용역, 제주4대권역 균형발전전략 수립 등과 연계한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토지소유자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진 기자